

새싹 편지

2010.12월호



Woosong News

- 다문화 프로그램 종료
- 2011학년도 수시면접
- 유아동작교육 특강

Our Story

- 크리스마스를 맞으며
- 2010년을 마치며



다문화 프로그램 종료



2010년 12월 11일 토요일, 4번째이자 마지막인 다문화행사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달의 주제는 “팝콘을 만들자”로 팝콘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팝콘기계를 직접 준비해 아이들과 팝콘을 만들어보고, 신문지를 팝콘모양으로 뭉친 다음 네트를 놓고 신문지 팝콘 상대방에 넘기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ppt동화인 “팝콘을 만들자”를 2학년 학생이 직접 구현 하였으며, 또한 부가적인 활동으로 과자집 만들기를 하였는데 아이들보다 부모님들이 더 좋아하시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과자 집을 다 만들고 난 후에 아이들의 꿈을 과자 집 위에 펜으로 적어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베트남, 미국, 한국, 중국, 일본 등 부모님 나라의 여러 음식을 준비하고 돌림판 만들기를 하였고, 또 나뭇가지에 직접 호일로 감아서 만든 트리에 소망카드를 만들어 아이들의 소망을 적어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복도의 벽면에 길게 전지를 붙여 도장 찍기를 하였는데, 도장은 폐품인 요플레 통을 손잡이로 하고 하드보드지를 판으로 하여 뽕뽕이를 붙여 도장을 만들고 찍어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한쪽 교실에는 여러 교구를 준비해 주었는데 그중에 음악교구인 큰북, 팽파리 등 여러 악기를 이용하여 아이들이 신나게 연주하고 나중에는 연주회를 열자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연주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재미있게 활동을 한 뒤 점심 식사를 하러 솔파인 레스토랑에 가서 크림스파게티를 먹고, 가정관 시청각 실에 모여앉아 4번에 걸친 캠프 폐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유아교육과 유아문학 연구회 동아리의 “하얀 나라” 블랙라이트 공연은 아이들이 큰 호기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초등학교 품물부 학생들의 난타공연과 지금까지의 다문화 활동들을 편집해서 만든 동영상을 시청하고, 첫 번째 다문화 활동 때 만들었던 도자기를 전시하고 나눠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다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다문화 가정의 유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보람찬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굉장히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1학년도 수시 2차 면접 실시

2010년 12월 3일과 4일에 걸쳐서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2차 수시면접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수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 진행되었으며, 수시 1차에서 8.14: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만큼 수시 2차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유아교육과에 지원 하였습니다. 수시면접은 3~4명이 조로 편성되어 2명의 교수님이 계신 교수 연구실에 들어가서 면접을 보는 형식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연구실 앞에서 대기하는 학생들은 긴장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면접을 대비한 대답을 준비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

며 초조하게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또 면접을 기다리는 동안 지원자 학생들은 대기실에서 소망나무에 자신의 소망을 적어보기도 하고, 수시 면접을 도와주는 도우미 학생들에게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다들 각양각색의 개성과 생각을 가지고 면접을 보러 온 학생들이었지만 모두 하나 같이 유아교육과에 꼭 진학하고 싶어 하는 진심과 열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유아동작교육 특강

2010년 12월 23일 목요일 유아교육과 2학년 학생들은 유아동작교육 관련 특강을 듣기 위해 가정관 시청각실로 모였습니다. 이번 특강은 대전 목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감선생님이신 계영환 선생님께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이 특강은 유치원에서의 실제 활동들을 보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몇가지 활동들을 듣는 것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통합적 음악활동들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과 형태들을 듣고 평소 통합이라는 단어에 익숙했지만 개념형성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던 학생들 또한 쉽게 이해하고



개념을 확고히 다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아의 표현력 신장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는데 그 방법 또한 신체악기를 이용해 다양하게 접해볼 수 있었습니다. 교사가 이러한 통합적인 교육을 할 때 유의점 또한 들을 수 있었는데 한가지만 소개하자면 유아가 처한 환경이 친숙하게 접할 수 있고 비의도적인 요소들로서 관심을 유발하고 경험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외 다섯가지 요소들이 더 있어 유익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수시 면접을 진행한 소감.... -김수정]

제가 입학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후배가 들어오니 1년이란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았고, 이제 정말 선배가 되고 후배를 맞이하는 기분이 신기하기도 하고 새롭기도 했습니다. 이제 후배가 들어오니 책임감도 느껴지고 걱정도 많이 되는 데, 2011학년도 학생들과 우리 유아교육과를 열심히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수시 면접을 본 소감..... -이인선]

다른 학교 면접을 많이 봤지만 우송대학교처럼 신경을 많이 써주는 학교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면접대기실을 찾아오기 전까지 여러번 정보를 주셨고 대기실에 와서도 다양한 다과와 볼거리를 제공해 주셔서 긴장이 덜되었고 제 선배님이 되실 지도 모르는 분들과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양한 사실들을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비록 면접에서 떨고 잘 말하지 못했지만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특강을 들은 소감..... -박아름]

특강을 통해 동작교육의 몰랐던 점을 많이 안 것 같고, 특히 동작통합교육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동작교육이 단순히 노래 부르고 율동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로 여러 가지 소리를 낼 수도 있고 다른 영역과의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한시간 반 동안 정말 배울 점이 많이 있었고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이런 특강을 또 듣고 싶습니다.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강을 들은 소감..... -박민정]

실제로 유치원에서 하는 활동으로 하니깐 이해하기가 쉬웠고 유아들에게 나은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손기호와 보르둔 등을 직접 몸으로 배울 수 있어서 현장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영상 너무 길어서 집중하기가 힘들었고 정확히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Our Story



크리스마스를 맞으며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이제 곧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학년 학생들은 대학교에 와서 처음 맞는 크리스마스라 더 설레어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한지 몇 개월 밖에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일 년을 마무리하는 크리스마스가 왔으며 시간 정말 빨리 간다면서 감탄하기 바빴습니다. 유아교육과 1학년 학생들에게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어떻게 지낼 것인지를 물었을 때 남자친구와 보낼 것이라는 학생들도 많은 반면 이번 크리스마스가 주말(토)에 끼어서 주말알바를 해야 한다고 한숨을 쉬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또 이번 크리스마스도 솔로로 보내야 하는 거냐며 크리스마스 특선 영화인 '나 홀로 집에'나 시리즈별로 다 봐야겠다는 학생들도 다수였습니다. 소수 솔로인 학생들은 크리스마스 날 번개를 동반한 비나 내렸으면 좋겠다고 농담 섞인 어조로 대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성친구가 있는 학생들은 크리스마스도 기대하며 설레어 하지만 31일에도 이성친구와 지내야겠다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모두들 각자 크리스마스에 계획을 세워 즐거운 하루를 보내려 했습니다.



2010년을 마치며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1, 2학년 학생들은 길 다면 길었고 짧다면 짧았을 일 년을 마치며 올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유아교육과 1학년 학생들은 정말 시간이 빠르다며 입학한 게 었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이 왔으며 이제 유아교육과 신입생이 아닌 유아교육과 2학년 선배가 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2학년 학생들은 또 다른 후배가 들어오고 차차 유아교육과에 전통이 생길 것 같아 기분 좋다고 말했습니다.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는 신설과로 아직 2학년 밖에 없지만 이제 내년 그 후년에는 4학년까지 꼭 차 있는 신설이지만 신설답지 않게 전통이 있는 과로 거듭날 것을 믿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은 크리스마스라고 즐거워만 할 게 아니었다며 한 살을 더 먹게 되어 슬프다고 전했고 일 년간 목표했던 일들이나 꼭 하고 지나가려 했던 일들을 다 성취하지 못한 학생들은 아쉬움이 남는 소리를 했습니다. 일 년이 지나가 아쉽다는 학생들이 가장 많았던 유아교육과 1학년 A반 학생들은 처음 대학생이 되어 성인으로서 지낸 일 년이라 뜻 깊고 그만큼 아쉬움도 남지만 이제 내가 선배가 된다니 너무 기쁘고 설렌다고 말했고, 좋은 선배가 되어야겠다고 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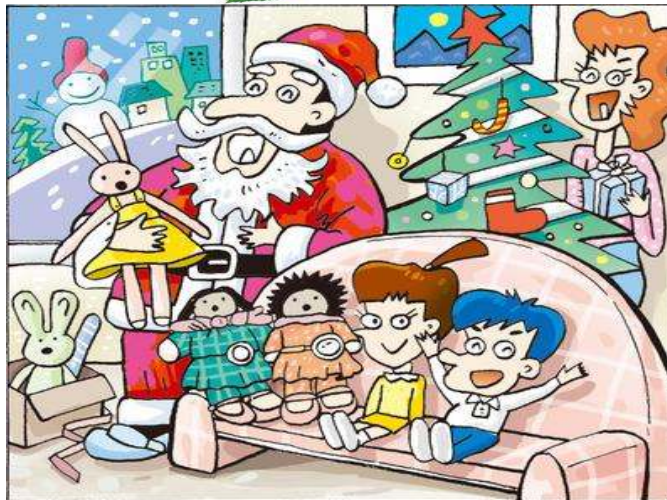
유아 상식

청개구리처럼 행동하는 우리아이 행동 대처법

어느 날 갑자기 청개구리처럼 행동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부모가 자신에게 소홀해지거나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동안 쌓여왔던 섭섭함과 불만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아이가 우울하거나 외로울 때 심해집니다. 이럴 때는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고 아이와 타협해야 합니다. 순간적인 감정으로 억박지르거나 주제가 불분명한 대화법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이에게는 선택과 자유를 구별할 수 있는 대화법이 중요하며 가급적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규칙을 어기거나 친구를 때리는 일, 나쁜 말이나 비속어 쓰지 않기 등은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로 경고한 후에 단호하고 짧게 혼내야 합니다. 흔히 부모들이 벌주는 방법은 두가지인데 먼저 호되게 비난하거나 엉덩이 등을 때려 아이가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 다른 하나는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인데 이는 때때로 필요할 경우도 있지만 불필요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먼저 말로 경고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정리할 시간을 준 후 듣지 않는다면 진지한 자세로 눈높이를 맞추고 어깨를 꼭 잡은 후 "엄마 말 들어!" 라고 분명하고 짧게 말해야 합니다. 반드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여성 조선 2010년 8월호 발췌

숨은 그림 찾기



찾을 그림

4단 만화



구질구질한 마음

병어리 장갑/상어/볼링핀/돈보기/털모자/화살표

By. 도바기

<발행처>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http://childedu.wsu.ac.kr>
 042) 630-9360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17-2 (300-718)

<발행인> 성원경 <편집인> 이예지

<만든이>
 * 박민정 : <http://www.cyworld.com/77-5-22-4-8-6>
 * 안선경 : <http://www.cyworld.com/01020434837>
 * 이예지 : <http://www.cyworld.com/ukyo->
 * 김소담 : <http://www.cyworld.com/ekath7962>
 * 송하나 : <http://www.cyworld.com/01066014827>

| | | | | | | | | | |
|-----------------------|----|---|---|---|---|---|--|--|--|
| 지 난 호 정 답 | 교수 | 배 | 활 | | | | | | |
| | 매 | 로 | 용 | | | | | | |
| | 슬 | 우 | 가 | 장 | 적 | 행 | | | |
| | 체 | 인 | 망 | 력 | 동 | | | | |
| | 타 | 조 | 능 | | | | | | |
| | 관 | 성 | | | | | | | |
| | 리 | 이 | | | | | | | |
| | 찰 | | | | | | | | |
| | 학 | | | | | | | | |
| | 습 | | | | | | | | |
| | | 주 | 의 | 집 | 중 | 과 | | | |
| | | 표 | 본 | 집 | 단 | 정 | | | |